



‘몸개그’의 향연...못할수록 박수받은 명랑 체육대회 ‘차려던 공은 다리 사이에 박히고...뛰어오르려던 다리는 풀려서 넘어지고’

16일 열린 체육대회는 연합뉴스노조 조합원들이 그동안 꼭꼭 숨겨뒀던 ‘몸개그’ 실력을 의도치 않게 드러낸 잔치였다.

그동안 ‘착하고 재미없다’라는 평가를 주로 들었던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사실 슬랩스틱 코미디의 달인들이었음을 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아침 사장실 앞 집회를 마치고 청운동 신세계 여자농구단 연습장에 모인 조합원들은 체육대회 시작 전부터 족구와 농구 연습경기를 벌이며 본 대회에서 쓸 체력을 미리 쏟아냈다.

이어 2011년 말 입사한 새내기 조합원들이 직접 걸그룹 시크릿의 ‘사이 보이’를 개사한 노래에 맞춰 상큼한 율동을 선보여 분위기를 띄웠다.

특히 한종찬(사진부) 조합원은 거칠면서도 발랄한 ‘단독 댄스’를 선보여 체육관을 큰 웃음으로 물들였다.

이런 분위기는 첫 종목인 피구 경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조성흠(사회부) 조합원은 날아오는 공을 차지 못하고 다리 사이에 끼우고 뛰어오르거나 헛발질보다 어렵다는 ‘헛헤딩’을 선보여 큰 환호를 받았다.



새내기 조합원의 깜찍 공연. 2011년 말 입사한 새내기 조합원들이 걸그룹 시크릿의 ‘사이 보이’를 개사한 노래에 맞춰 상큼한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경기 도중 교체된 조 조합원이 “계획된 개그였다”며 자랑스러워하자 박성민(보도국 파견) 조합원도 연속 수비 실책으로 ‘맞볼’을 놓는 등 조합원들의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졌다.

점심 후 열린 줄넘기 대회에서는 고동선(네트워크사업부) 조합원이 꼬박 꼬박 두 다리 사이로 줄을 집어넣는 묘기를 선보였다.

농구 예선에서는 유례없는 ‘골든골 연장전’이 5분 가까이 이어져 관중들이 설 새 없이 탄식과 폭소를 쏟아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실수를 저지른 선수들에게 큰 웃음과 함께 갈채를 보내 모처럼 ‘몸개그’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물론 꾸준한 훈련으로 틈틈이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인 이들도 많았다.

이동철(보도국 파견) 조합원의 ‘돌려차기 스파이크’와 장현구(스포츠레저부) 조합원의 ‘골밀 장악력’은 이날 족구와 농구 경기의 ‘백미’라는 평을 들었다.

여성 조합원들이 벌인 피구 경기에서도 보기드문 ‘강속구’가 등장해 탄성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역시 이날 가장 큰 갈채를 받은 것은 공병설 위원장의 ‘노익장’이었다.

공 위원장은 줄넘기의 D조 1번 주자로 등장해 20차례 이상 뛰어올라 팀의 우승을 이끌더니 농구 경기에도 주전으로 나서 전반전을 풀로 소화해 ‘과연 강철체력’이라는 찬사를 한몸에 받았다.

조합원 모두가 한바탕 웃음으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던 체육대회에서는 조성흠 조합원이 이끄는 B조가 종합점수 490점으로 우승했다.

다함께 뛰어보자 ‘플짝’



체육대회 줄넘기 경기에서 공병설 노조 위원장이 이끈 D조가 20차례 이상 뛰어올라 우승했다.



이것이 돌려차기 스파이크다!

보도국 파견 이동철 조합원은 명랑 체육대회 족구 경기에서 화려한 ‘돌려차기 스파이크’를 선보이며 팀의 득점을 독식하다시피했다. 하지만 이 조합원이 속한 조는 아쉽게 족구 경기에서 준우승했다.



내가 피구왕 통키... 불꽃 슛 받아라

스포츠레저부 김은경 조합원이 피구 경기에서 강속구를 던지며 상대팀을 아웃시키고 있다. 여성 조합원 가운데 사회부 차지연, 국제뉴스부 정빛나 조합원이 '통키' 반열에 올랐다.

노조 사무국장인 정성호 조합원은 이날 농구 경기에서 남다른 열정을 보이며 투혼을 발휘했다. 하지만 정 조합원이 속한 C조는 1차전에서 탈락했다

‘매의 눈’ 정성호 조합원



공정보도 케이크 드셔보실래요



지난 6일 결혼한 새 신랑 김동현 조합원(사회부)이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공정보도 떡케이크'를 가져와 커팅식을 하고 있다. 이날 아침식사도 거른 채 동관 7층 사장실 앞에 집결했던 조합원 수십명은 김 조합원이 마련한 따뜻한 썩·호박 떡을 조금씩 나눠 먹으며 허기를 달랬다.

오늘의 파업 키워드*

“여행”

그동안 노래방에서 '여행을 떠나요'를 열창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지만, 간만에 정말 떠날 기회가 찾아왔다.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 친구, 동료들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떠난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모아봤다.

김민희 조합원 (IT개발부)
“엄마와 썩 캐러 다니면서 추억을 ‘썩썩’ 키웠죠.”

파업 일정이 오전에 끝나는 날이면 '초보 드라이버' 김 조합원은 운전대를 잡았다. 옆 좌석에 어머니를 태우고 김 조합원이 향했던 곳은 양평의 다산 유적지. 그곳에서 김 조합원은 어머니와 함께 썩 캐는 재미에 푹 빠져들었다. "연합뉴스 파업이 봄에 시작됐잖아요. 한강을 따라 만들어진 청정지역에서 엄마와 썩을 캐어요."

모녀가 정성껏 캐온 썩은 그날 저녁 따뜻한 썩국과 썩 차로 변신해 식탁 위에 올랐다고. 김 조합원의 피부가 봄 햇살처럼 고운 까닭이 따로 있었던 셈이다.



“분노하라 연합뉴스”

〈2005년 입사(26기) 조합원 '외연 반의 외출'〉

꼭 8년 만에 이들이 다시 뭉쳤다.

2005년 입사한 이들은 파업이 시작되자 황금 주말을 실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속초 MT를 추진했다.

다만, 기혼자는 여행 대오에서 제외하지는 총의에 따라 강병철, 구정모 조합원은 각자의 가정으로 복귀했다. 기탄없이 떠난 이들은 1박2일 동안 바다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잔뜩 먹었다.

속초에 왔으니 화는 기본, 오징어 순대는 간식, 안 먹으면 섭섭할까 달콤 짭짤한 만석 닭 강정에 1주일만 쉬어도 생각나는 폭탄주와 삼겹살을 곁들인 위대한 만찬이었다.

'버스커버스커'의 노래를 듣고 속초 바다를 감상하며 그동안 노트북 앞에서 메말랐던 감성까지 잔뜩 충전하고 돌아왔다. 특별히 이번 여행에는 K본부로 간 동도 동행, 파업의 고통을 함께 속초 바다에 투척하고 왔다는 후문이다.



배영경 조합원(국제뉴스3부)

배 조합원은 10년 동안 찾아뵙지 못한 외할아버지를 만나러 대전으로 향했다.

고등학교 시절 이후로 현충원의 할아버지 묘소를 방문하지 못했다는 배 조합원. 이번에는 아예 꽃과 소주, 도시락까지 단단히 준비해 말손녀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지리산의 정상에서 공정보도를 외치다〉

평소 '연합의 엄홍길'로 불리는 박용주 조합원이 평소 후배 4인(임기창, 이지현, 김승욱, 김수진 조합원)과 함께 지리산 등반에 나섰다.

전문 산악인이 아님에도 이들의 등반 일정은 가히 '프로페셔널리조트'에 가까웠다. 첫날 등반시간만 총 13시간. 인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북극을 지나 시카고 공항에 도착하고도 남은 이 시간 동안 이들은 걷고 또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천왕봉에 도달했을 때 5인은 품에 지니고 있던 〈분노하라 연합뉴스〉 플래카드를 활짝 펼친 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번 여행에서 박 조합원은 숨겨왔던 요리솜씨를 마음껏 뽐냈으며, 애주가로 유명한 임 조합원은 지리산까지 올라왔는데 술이 없다는 사실에 '선배 일진'의 어머니도 포기하고 육두문자를 읊조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풀밭 벗어난 '정치부' OUT OF 경기장 '스포츠레저부'

부서별 MT도 잇따랐다. 정치부는 강화도로 떠났다. 저녁식사 당번을 정하려고 여·야당으로 팀을 나눠 피 튀기는 족구 대결을 벌이는가 하면, 파업 투쟁기금 5만원을 걸고 젠가 게임을 하느라 밤이 새는 줄도 몰랐다는 후문.

스포츠레저부는 안면도를 선택했다. 주말에도 취재할 경기가 많은 부서 특성 때문에 이번 여행은 스포츠레저부 역사상 최초의 MT가 됐다. 최초의 여행을 앞두고 현재 부원들은 극도의 흥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